

'중국침략 사죄·배상' 결의안

94.3.16 한겨레

호소카와 방중 겨냥

속 심의 형태로 나왔다.

일총리, 중국인권 거론키로

【도쿄=연합】 중국의 후베이성 선출 대표 등 32명은 15일 오는 19일부터 있게 될 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현재 개최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(전인대)에 “일본의 중국 침략에 대한 공개사죄와 피해자의 민간 배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”고 일본의 <교도통신>이 이날 베이징발로 보도했다.

— <교도통신>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“결의안 제출은 일본에 대한 중국 전쟁 피해자의 뿌리깊은 불만을 나타내는 동시에 호소카와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적극적인 사죄를 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”고 말했다.

— 중국의 일본에 대한 전쟁 사죄와 민간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은 92년의 전인대 때에도 제출된 적이 있으나 중국 정부 당국은 이를 정식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계

【도쿄=교도 연합】 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 총리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베이징 방문중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 및 리펑 총리와 만나는 자리에서 “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권문제를 시급히 해결”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일정부 소식통이 14일 밝혔다.

호소카와 총리는 중국이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인권이 내정문제임을 내세우더라도 인권문제에 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소식통들은 덧붙였다.